삼성전자–광주 창업기업, 협업모델 개발 나선다

광주시·삼성전자C-Lab·지역기업 '삼성 스타트업데이 광주' 공동개최
사업화 모델 발굴·중장기 협업 공유
지역창업생태계 조성·창업문화 확산

삼성전자와 광주지역 창업기업들이 협업모델 개발에 나섰다.

광주시는 삼성전자C-Lab과 함께 24일 치평동 삼성화재 상무사옥 20층 C-Lab 아웃사이드 광주에서 지역 30여개 창업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 스타트업 데이 광주'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공동 협업모델 개발을 위한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대표 박철구)의 '인공지능(AI) 비침습 혈당 진단기' △링커버스(대표 박영준)의 '사람 손톱 인공지능(AI) 분석으로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데브언리밋(대표 정규민)의 '인공지능(AI)모션캡쳐 기술 기반 케이팝 댄스 게임 플랫폼' 등 지역 창업기업들의 창업아이템에 대한 기술발표가 펼쳐졌다.

특히 지역 창업기업과 삼성전자C-Lab 간 1대 1 만남의 장은 이번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5 C-Lab Outside' 공모전에 참여할 지역내 우수 창업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교류(네트워킹)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내 최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전 대표가 창업생태계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삼성전자&스타트업협력사례'에서는 이대화 닥터테일 대표가 미국에 수출되는 삼성 스마트TV에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담 플랫폼을 탑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발표, 지역 창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삼성C-Lab 아웃사이드 광주'는 해마다 광주지역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별 1억원의 사업지원금 지급, 1년간 사무공간 무상 제공, 업체별 맞춤형 성장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 성장 촉진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협력과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은 "'삼성전자 C-Lab 아웃사이드 광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열어 광주창업기업 8개사를 선발·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광주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 앞서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사전 교류행사를 매월 개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올해 조광페인트, IBK창공, 효성첨단소재에 이어 호반그룹, HD현대삼호, 메가존클라우드 등 대기업 13곳 이상이 '개방형 혁신전략'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지역기업들의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대상에 해남 '비원'

43개 정원 응모…우수 9개소 선정
정원문화 확산·관광브랜드화 기대

전남도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한 '2024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자연과 식물의 조화를 강조한 '비원' 등 9개의 우수정원을 선정했다.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도민이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처음 개최했으며,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지난 4년간 수상한 우수정원은 40개소로 순천 '화가의 정원산책'이나 해남 '문가든', 보성 '성림정원' 등은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정원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콘테스트는 생활권 정원과 개인주택 정원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6개 시군에서 총 43개 정원이 응모했다. 심사는 정원 전문가 심사위원단 4명이 참여해 정원의 디자인 및 심미성, 식재 및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아름답고 특색 있는 정원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을 수상한 해남 '비원(정원주 김미정)'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정원으로, 한울정원과 바람의 정원 등 다양한 식물의 조화로운 배치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부문별로 생활권정원의 경우 최우수상 여수 '그로브 농부의 정원(정원주 홍정녀)', 우수상 고흥 '솔바위 정원(정원주 정지현)'과 곡성 '축복정원(정원주 박재순)'이 선정됐다.

개인주택정원은 최우수상 나주 '계화정원(정원주 박여정)', 우수상 나주 '징하네 엄니정원(정원주 배정민)', 해남 '해남에 살고 싶다(정원주 김향희)'가 수상했다.

이밖에 장흥 '723미술관 정원(정원주 최세영)'과 장흥 '한일분재예술원(정원주 김정남)'이 특별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상식을 통해 선정된 각 정원에 정원주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전남도 예쁜정원' 현판과 상패,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오지현 기자

행복 약국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2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직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1일 행복약국'에서 처방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바이오맥파(HRV) 검사를 통해 신체에 누적된 피로도 등을 측정하고, 그림 상담으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확인했다. 오는 9월부터는 악성민원과 대민업무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양배 기자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농가 62% '친환경 인증'

전남도, 57개 마을 운영현황 조사
작년 전체 3520ha 중 1954ha 달해
우수자원 연계 체험관광 농가소득↑

전남 농업이 무농약에서 유기농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두부·녹차 등 지역 우수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이 농가소득 증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농업 확산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마을 대표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생태마을별 농가 수, 친환경 인증 현황, 매출액, 체험활동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기농생태마을 전체 경지면적 3520ha 중 1954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규모다.

전체 농가 2032호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1251호로 62%를 차지했다. 친환경 인증면적 1954ha 중 유기농 인증을 받은 면적은 82%,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1251호 중 유기농 인증농가는 76.5%로 무농약에서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다만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전년대비 마을당 평균 인증 농가 수는 1~2호, 총매출액도 243억원으로 마을당 1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마을 우수 자원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나주 계량마을의 경우 막걸리, 두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2022년 2200만원에서 2023년 3500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보성 영천마을도 녹차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배 이상의 소득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 연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을 접목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는 유기농 생태마을 하반기 추가 신청 및 신규 지정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 100개소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지난해 기준 57개였던 유기농 생태마을 중 3개 마을을 지정 취소하고 54개 마을을 재지정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4개 마을을 포함해 총 58개 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운영 중이다.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취소 마을은 사례별로 농가 수와 인증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마을 1곳, 비의도적 비산 등이 발생한 마을 2곳이다. 향후 지정 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송암·효덕·대촌동 흐린물 주의"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5일과 30일 덕남정수장 내 덕남배수지 비상관로 연결공사 작업을 위해 남구 일부지역의 수계(밸브)를 조절함에 따라 수압 저하로 일시적으로 흐린물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작업시간은 25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0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며, 남구 송암동·효덕동·대촌동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흐린물 발생이 예상된다.

이번 공사는 덕남배수지 내 단수와 긴급상황을 대비해 비상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유사때 덕남배수지 급수구역에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관로공사이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계(밸브) 조절전 흐린물 출수예상 구역을 직접 찾아 작업시간에 흐린물 출수 가능성과 협조를 안내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해 다량의 빛여울수(1.8ℓ)를 준비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계조절팀(062-609-6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 육성 잰걸음

전남도는 24일 마이스 관련 전문가, 전남관광재단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이스(MICE)란 단기간에 국제기관 또는 기업 등을 대규모 유치,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날 보고회는 과업의 범위, 수행 내용, 추진방향 발표와 관계자 토론·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용역의 방향성 확립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전남 특화 마이스산업 모델 구축 △전남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마케팅 방안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이스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및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 마이스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